

정읍시 생태관광자원 육성 청신호

문광부 '스마트관광 조성사업'

1차 예비후보자 선정

ICT 접목 콘텐츠·인프라 구축

정읍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스마트관광 도시 조성사업' 1차 예비후보자로 선정돼 생태관광자원 육성의 청신호가 켜졌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35억원을 투입해 민관협력력을 통한 ICT기반의 관광콘텐츠·인프라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차별화된 여행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모에는 전국 17개 지자체가 참여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심사에서 정읍시를 포함한 4개 도시가 예비후보자로 선정됐다.

정읍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의 생태관광자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아웃도어형 경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시가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1차 예비후보자로 선정됐다. 국립공원 내장산생태탐방원.

정읍시는 해당 사업 공모 이전부터 운준병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서울·정읍에서 수시로 만나 회의를 진행, 스마트관광도시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사전에 미리 공모사업에 대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비후보자 4곳의 경쟁단계(발표·현장 평가 등)를 거쳐, 3월 초 2개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예비선정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자원인 정읍의 생태관광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부계획 수립 등을 꼼꼼히 챙겨 정읍시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s@

고창군, 20억원 투입 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

고창군이 올해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2022년도 비가림 재배 시설하우스(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비가림 재배 시설하우스는 식재 시기를 앞당기고 수확 시기를 연장해 일반 노지재배보다 생산량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또 병해충 피해를 낮춰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이는 등 농작업이 수월해져 고추나 특화 작물 재배 농가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 농가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농생명지원과 원예특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첨단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고소득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 28건 적발

과태료 부과·세무서 통보 조치

익산시가 편법 증여와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투기 사례 28건을 적발해 조치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 분석을 통해 투기로 예상되는 물건 646건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28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사안별로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17건과 편법 증여 의심 8건, 허위신고 3건 등이다.

허위신고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구매자에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불법 중개 행위와 허위매물 홍보,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편법증여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했음에도 증여

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시는 허위 신고 3건에 대해서 과태료 5800여만 원을 부과하고, 편법증여 8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17건 중 5건은 익산경찰서에 수사 의뢰되고 나머지 12건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했다.

시는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불법 투기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 태양광발전 시민펀드 모집... "수익률 7% 드려요"

1인당 100~2000만원 참여 가능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가 될 '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시민펀드 모집이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가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시민펀드 모집에 착수했다. 금액은 664억원 규모다.

시민펀드의 투자한도는 1인당 100~2000만원이고, 법인은 1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만기 후 재참여가 가능하다. 이익 배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지급할 예정이다.

수익률은 채권 이자율이 7%로, 세후 수익률은 5.45%다.

시민발전(주)은 "시민펀드 투자 시 투자금 보호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의 발전시간을 보증하고 선순위 채권투자자로 설정해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시중 저금리(1~2%)보다 월등히



새만금육상태양광.

높은 수익률로 매년 2회의 이익배분을 통해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5년 만기 후 재참여가 가능해 장기 투자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시민들과 발전수익을 공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인 만큼, 수익공유를 위해 시민들의 투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 2구역 1.2㎢ 부지에 99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연간 발전량은 12만2708MWh에 달한다.

/군산=박국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순창군, 청년 귀농인 임시거주지 입주자 모집

순창군이 청년 귀농인을 위해 조성한 임시거주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간은 귀농인 마을 내 원룸형(27㎡) 3동과 제재형 가족실습 농장 내 복층형 아파트(75㎡) 1동 등 총 4동이다. 신청자격은 197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사람으

로 귀농귀촌 의사가 있는 청년이면 된다.

원룸형 구조는 미혼 청년에 한해 2인 1조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각 1년이며 임대료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 원룸형은 월 5만2400원으로 연간 62만8800원, 복층형은 월 19만6000원으로 연간

235만2000원이다.

군은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 환경을 미리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귀농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귀농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입주신청서와 귀농귀촌 계획서, 첨부서류 등을 지참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시 최대 60개월까지 청년 주거비 지원

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남원시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2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 만큼만 지급하고 매년 신규 사업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 5년 이내에서 지원기간을 결정한다.

신청대상은 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2022년 1월 10일)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350만원)이다.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

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이다.

단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 청년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거주 읍·면·동과 시에서 자격확인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중에 개인별 문자 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남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고 생활안정 및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